

# 하반기 돼지가격 변동요인 점검

## 1. 최근 돼지고기 가격변화 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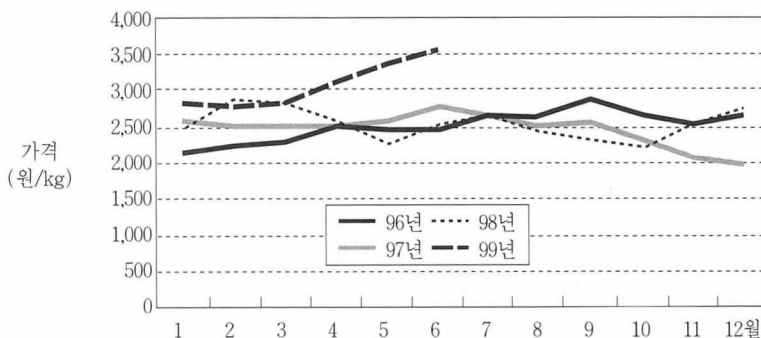
**돼**지와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변동은 돼지가격이 1991년까지는 가격의 변동폭이 100kg 두당 40천원 이상으로 매우 심한 추세였으나 1992년 이후부터는 전년대비 가격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안정적인 변동폭과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92년 1월 1,276원/kg 이었던 돼지가격이 1997년 4월에 1,740원/kg, 6월에는 1,900원/kg까지 오르면서 깊은 계곡과 높은 봉우리의 가격변동 없이 꾸준한 상승추세를 형성하였으나 IMF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11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는 1,300원/kg대에 이르렀으며 돼지고기의 소매가격과는 달리 돼지의 산지 가격과 지육도매가격은 심한 하락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IMF 금융재난사태가 예상보다 빨리 바닥을 쳐 회복되고 있고 사료가격의 지속적 하락조절과 금리인하, 대일 돼지고기 수출호조, 모든의 집중축하 도축으로 증식기반의 약화, 지난 겨울 돼지질병으로 인한 출하두수 감소 등으로 1999년 6월 2일 현재 돼지가격이 2,180원/kg, 지육가격은 3,550원/kg까지 올라 사상 최대의 가격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그림1).

이와 같이 돼지가격과 지육가격이 1996, 1997, 1998년의 평균추세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4월 이후 지난 3년 동안 같은 달보다 kg당



정 찬 길 교수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그림1〉 지육 평균가격 변화 추이(1996~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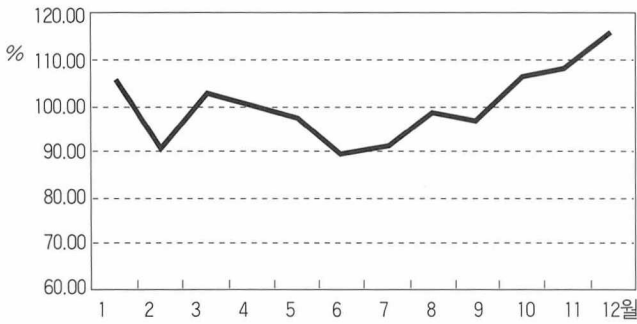
가격이 500~1,000원이나 높게 형성되고 있다. 돼지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양돈농가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즐거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육의욕의 증가에 의한 사육 두수의 증폭은 소비와 수출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한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작금의 돼지가격의 폭등과 호황에 정책당국과 업계는 사전적으로 돼지의 호황대책(好況對策)을 강구하여 돼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양돈산업이 총체적 혼란과 희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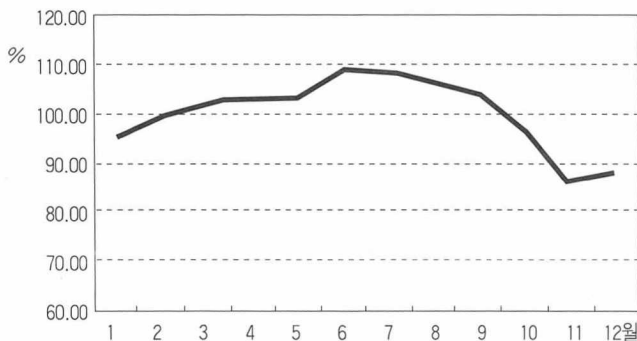
## 2. 돼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장·단기 요인

돼지가격의 변동요인은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수요의 변동

〈그림2〉 돼지 도축두수의 계절지수, 1993~1998



〈그림3〉 돼지가격의 계절지수, 1993~1998



작금의 돼지가격의 폭등과 호황에 정책당국과 업계는 사전적으로 돼지의 호황대책(好況對策)을 강구하여 돼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지 않으면 양돈산업이 총체적 혼란과 희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인은 소비자의 소득(+ 혹은 -), 소비자의 취향과 선호(+), 대체육류의 가격(대체재 +, 보완재 -), 광고(+), 인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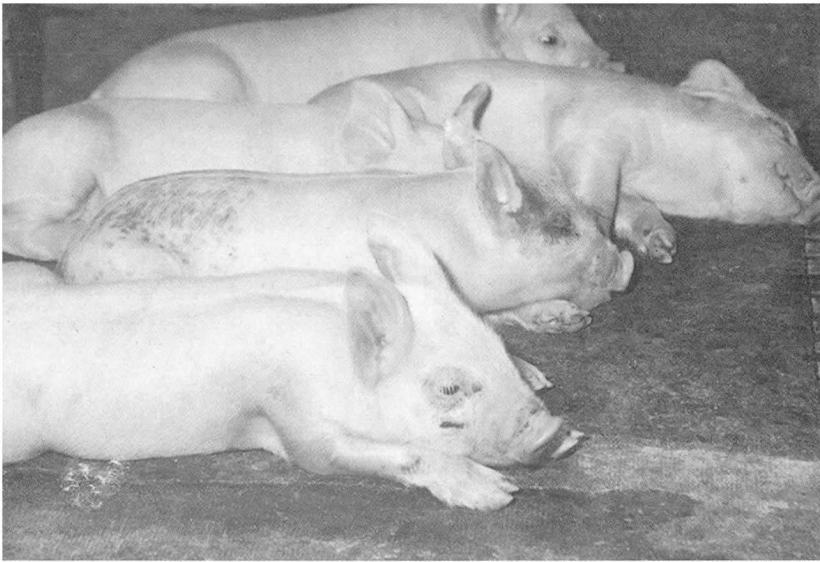
공급의 변동요인은 생산요소의 가격(+), 기술(+), 경쟁재의 이윤(-), 기후(+), 결합생산물의 가격(+), 위험과 불확실성(-), 정부의 정책(+ 그리고 -), 양돈농가의 수(+ 혹은 -)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돼지의 연내 단기적 가격변동은 주로 공급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가격변동은 돼지와 돼지고기 공급량의 집중분석에 의해서 추론되어야 한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 돼지고기의 수입은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의해서 꾸준히 증폭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달러화 가치절하, 냉동육 대신에 냉장육 수송 신기술 개발, 시장개장, 수입국의 소득증가, 수입국의 환경규제, 인구증가 등에 의해서 돼지고기 수출국들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돼지고기 수입국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 도축두수의 계절지수와 돼지가격의 계절지수에 의한 가격변동

1999년의 하반기 돼지가격의 변동요인



연중 가장 많다. 연평균보다 낮은 달은 2월, 4월, 5월 7월, 8월로 2월에는 도축 두수가 평균보다 11.53%가 낮다(그림2).

반면에 돼지가격의 계절지수는 일반적으로 도축두수가 많은 11월 86.79, 12월 88.17, 1월 95.10으로 연평균 가격보다 낮고, 11월의 돼지가격은 도축두수가 많은 돼지가격은 연평균보다 13.21%가 낮다. 또한 도축두수가 적은 3월

은 지난 수년 동안의 돼지 혹은 돼지고기의 공급 변화 패턴을 24개월 중앙이동평균법에 의한 계절 지수를 측정하여, 월별 공급지수와 역(逆)관계를 형성하는 가격의 계절지수의 정도에 따라 연내(年内)에 월별 평균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지수의 계측기간 동안의 양돈산업의 자연적, 기술적, 경제적 경영환경이 1999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1994~1998년간의 총 도축두수의 계절지수는 1월 104.65, 2월 88.47, 3월 101.42, 4월 99.49, 5월 97.43, 6월 88.96, 7월 91.82, 8월 99.15, 9월 97.48, 10월 105.46, 11월 109.60, 12월 116.08로 연평균 도축두수 보다 높은 달이 3월, 10월, 11월, 12월이며, 이들 중 12월에는 도축두수가 연평균보다 16.08%

나 높아 돼지고기의 공급량이

101.54, 4월 102.60, 5월 103.35, 6월 108.58, 7월 107.96, 8월 105.92, 9월 104.40으로 도축두수가 매우 적은 6월의 돼지가격은 연평균가격 보다 약 9%가 높아 최정점을 이룬다(그림3).

따라서 1999년 하반기의 돼지가격의 변동을 1994~1998년간의 돼지고기 공급량의 연평균 변동에 따라 추론하면 가격은 연내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하반기 월별 가격은 평균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것이 상례이다. 하반기 돼지가격은 연평균가격보다 10~13% 정도 낮게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수입·수출량의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의 차이가 날 것이다.

#### 4. 돼지사육두수의 변화에 의한 가격변동

돼지의 사육두수는 도축과 돼지고기 공급량에 정의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사육두수의 수준은 매우 중요한 가격변동 요인이다. 실제로 1999년 3월의 돼지사육두수는 7,376천두로 1998년 9월 7,788천두에 비하여 5.6%가 감소하여 돼지고기 대일 수출량 증가와 함께 돼지가격 폭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 하반기의 돼지사육두수는 9월에 7,600천두, 12월에 7,500천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관측기관에 의하여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사육두수가 증가할 경우 돼지고기의 수입·수출이 평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사육두수

1999년 하반기의 돼지 가격의 변동을 1994~1998년간의 돼지고기 공급량의 연평균 변동에 따라 추론하면 가격은 연내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하반기 월별 가격은 평균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것이 상례이다. 하반기 돼지가격은 연평균가격보다 10~13% 정도 낮게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수입·수출량의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의 차이가 날 것이다.

를 급감시킬 가축질병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반기 돼지가격은 억제되거나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망은 하반기 사육두수의 관측의 신뢰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사육두수의 관측은 다양한 예측계량 모형에 의하여 추정될 수 있으나 단기 관측은 젓먹이 돼지용, 모돈용, 그리고 육성돼지용 사료의 생산량과 모돈 수에 따라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돼지의 생리적 성장을 개략적으로 임신 114일, 포유 30일, 재발정 7일, 이유 30일, 비육 90~100일로 가정하면 1999년 3월의 젓먹이용 사료생산량은 5.5개월 후인 7~8월의 사육두수, 모돈용 사료의 생산량은 9.5개월 후인 11~12월의 사육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 3월의 모돈용 사료는 88천톤으로 1998년 90톤에 비하여 2.3%가 감소하였으나, 1999년 1월 82천톤에 비하여 7.3%가 증가하여 11~12월 사육두수는 1998년 12월 7,544천두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7,400만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젓먹이용 사료 역시 136천톤으로 1998년 12월의 162천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1999년 1월 수준과 같아 7~8월의 사육두수는 7,45천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가정 하에 추정된 사육두수의 추세를 근거로 하반기 돼지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수출호조와 더불어 수출량에 상당한 수입이 이루어 하더라도 보합 내지는 약간 하락하는 가격변동이 될 것이다.

## 5. 돼지고기 수·출입량의 변화에 의한 가격변동

돼지고기의 수입·수출량은 국내 단기 수급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1998년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환율급등과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위축으로 1997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돼지고기의 국내·외 교역 여건이 호전되어 1~4월의 수입량이 35,034톤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유

하반기 돼지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수출호조와 더불어 수출량에 상당한 수입이 이루어 하더라도 보합 내지는 약간 하락하는 가격변동이 될 것이다. 돼지고기의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내 돈육생산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출물량이 국내 시장에 유통이 불가피 해 돼지고기의 공급과잉에 의한 돼지가격하락이 유발될 것이다.

통업체들이 마진폭이 큰 양념육과 가공육의 원료육인 전지수입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벨지움산 수입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으로 판매금지 조치와 미국, 덴마크 등의 수입돼지고기 소비폭락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 증폭으로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의 수출은 1999년 일본에 10만톤에 3억5천만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수출은 주로 등심, 안심, 후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수출은 국내 돼지고기 가격변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돼지가격의 폭등으로 원료돈 가격이 천장부지로 올라 돼지고기의 적자 수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처럼 높은 돼지가격이 지속된다면 냉장 돼지고기의 수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1년 일본이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을 선포하면 일본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한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의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내 돈육생산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출물량이 국내 시장에 유통이 불가피 해 돼지고기의 공급과잉에 의한 돼지가격하락이 유발될 것이다.

끝으로 발생한 벨지움산 수입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으로 돼지고기의 소비위축의 정도와 수입둔화는 일본으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입 수요의 수준에 따라 금년 하반기 돼지가격변동의 심각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동**